

제1장 구연(具緣)

우선 제1장에서 수행인이 무엇 때문에 계율을 지녀야 하는지 그 총체적인 요점부터 밝히기로 한다.

최초 발심한 수행인은 우선 계율부터 청정해야

夫發心起行 欲修止觀者 要先外具五緣
대체로 처음으로 발심하여 지관수행을 하려하는 자라면 최우선적으로 외적인 조건으로서 다섯 가지 인연을 갖춘 뒤에 지관 수행으로 진수해야만 그 효과가 진실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 비유하면 집을 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그 기초가 견고해야만 일층에서 내지는 고층까지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지을 수 있는 것과도 같다.

1. 지계청정(持戒清淨)

발심한 수행인이라면 첫째 청정하게 계율을 지녀야만 그로 인해서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정해(戒定慧) 삼학 중에 지계가 최우선이라는 말이다. 가령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지 않는다면 선정이 일어날 길이 없다. 이른바 계율이 청정해야만 선정이 일어나고 선정이 의지해야만 지혜도 동시에 발현한다는 것이다.

如經中說 依因此戒 戒生諸禪定 及滅若智慧
이문제를 정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계율이 청정하지 않으면 삼매가 현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핍 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 선정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선정을 따라서 지혜광명이 환하게 발현할 때만이 일체 모든 고통을 소멸할 수 있다. 괴로운인 삼고·팔고 내지는 한량없는 모든 고통이 지혜공덕을 의지해야만 소멸할 수 있다.

<능엄경>에선 살생·도적질·음행·허망한 말, 다시 말해서 사바라이죄 또는 사중금계(四重禁戒)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 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수행인이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지 않는다면 설사 그가 많은 선정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 해도 마군의 업이 되어 끝내 마왕이 될 뿐이다. 이는 마치 모래를 찢다보면 부질없는 수고일 뿐 끝내 밥이 되지 않는 이치와도 같다.

是故此丘應持戒清淨

그러므로 지관수행을 하는 비구라면 우선적으로 반드시 계율을 청정하게 지녀야만 한다. 지자 대사가 지관법문을 설한 이유는 속가 형을 위해서 설했을 뿐 아니라 사부대중 모두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비구만을 말한 것은 비구라는 한마디에 나머지 비구니·우바새·우바이까지 그 모두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회는 사부대중을 동시에 빠짐없이 갖추고 행하므로 그 가운데서 비구 하나만 말해도 나머지 셋을 동시에 포함하여 사부대중 전체를 포괄하게 된다.

然有三種行人持戒不同 一者若人未作佛弟子時 不造五逆

앞장에 이어서 지계하는 모습을 세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중생들 근기가 상 중 하 세 품류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상품인이 계율을 지니는 모습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가령 수행하는 사람이 아직 발심하기 전 부처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상살이를 범도대로 순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불교계를 가운데서 가장 급기로 여기는 오역죄(五逆罪)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오역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를 살해하고, 둘째 어머니를 살해하고, 셋째 아라한을 살해하고, 넷째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다섯째 화합대중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선 이 다섯 죄악 가운데 단 한가지만 범해도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무간이란 말은 빠저나올 간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이 다섯 가지 죄악을 저지르면 지혜법신을 잃고 끝내 생사고통의 흐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後遇良師 敎受三歸五戒 爲佛弟子

상품인은 오역죄를 짓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우연히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 재가인으로서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하면 청정한 재가불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불법에 의지해서 자신을 수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정화하여 자리아타를 병진할 수 있는 것이다.

若得出家 受沙彌十戒

상품인의 근기로 출가를 하여 사미가 되면 심계를 받게 된다. 출가인의 심계에도 재가 오계에서처럼 음행하지 말라는 계율조목이 거듭 나오는데 그 의미는 재가오계에 서의 의미와 크게 다르다. 재가오계에서 ‘음행하지 말라’ 한 것은 자기 분수 밖의 사탄 음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 국한하지만 출가인의 입장에서 정음과 사음 이 모두를 금지한다.

재가오계 외에 출가심계엔 다섯 조목이 더 추가된다.

첫째는 높고 넓은 큰 침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그 제도를 제정하시기를 침상의 높이를 부처님 손가락 길이의 여덟 배를 넘기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넘기하면 그것은 바로 파계이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꽃을 염주 알 꿇듯 머리를 화려하게 장식해선 안 되며 또 꽃을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옷으로 그 몸을 장식해서도 안 된다. 수행인이란 몸과 마음을 항상 소박하게 하여 화려한 복장이나 향기로운 냄새로 눈을 현란하게 장식하여 복을 감손하는 일은 단정코 해선 안 된다고 금지하였다.

세 번째는 수행인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유희하는 곳에 가서 구경하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듣는다면 성색에 현혹되어 탐욕의 번뇌에 오염되어 도법을 잃고 악업을 짓는 일이 이

를 따라서 나날이 증진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때가 아닌 음식을 먹지 말라 하였다. 대체로 모든 하늘나라에서는 아침에 음식을 먹고 부처님은 정오에 음식을 드시고 축생들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가 말법인지라 중생들의 업이 지중하여 출가 후엔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신체가 허약해져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옛 조사스님께서 방편문을 열어 하루에 세 번 또는 네 차례씩 자주 먹게 하였는데 이것이 때가 아닌데 먹는 입임을 알아야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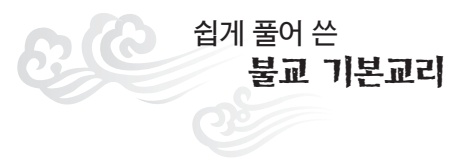
따라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복용해야만 한다.

다섯 번째는 수행인은 금은이나 재물을 탐하고 지니지 말아야 한다. 출가인은 안빈낙도를 해야만 하며 재물에 탐심을 일으킨다면 그는 탐욕이 증장하고 도심이 감소한다.

이상의 심계를 출가한 사미라면 반드시 청정하게 지녀야만 한다.

■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hania.com/community/song



번뇌의 종류-탐심②

5) 자구탐(資具貪)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의식주와 재물·권세·명예 내지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이 모든 도구들을 내 삶의 밑바탕이 되는 도구라는 뜻에서 통칭 ‘자구(資具)’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삶의 바탕이 되는 일체의 도구를 즐기고 굳게 집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자구탐이라고 합니다.

6) 탐탐(貪貪)

탐탐은 마음속에 어떤 바램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간단없이 탐애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마음 속으로 어떤 미인을 상상하고, 그 미인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나 만나지 못했을 경우 그의 탐심 속에서 항상 그 미인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간단없이 탐애하는 마음을 쉬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탐욕의 경계를 탐애한다는 의미인 ‘탐탐’이라고 합니다.

7) 개탐(蓋貪)

모든 인류는 과거에 누렸던 즐거웠던 일들을 잊지 않고 그 향수에 젖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과거에 탐애했던 경계를 쉽사리 버려버리지 않고 간직하면서 그 탐심에 덮여있다는 의미인 ‘개탐’이라고 합니다.

8) 견탐(見貪)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굳게 탐애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를 두고 자기의 견해만이 옳다고 굳게 집착한다는 의미인 ‘견탐’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덟 종류로 탐애하는 마음의 모습을 대략 밝혀보았는데 이를 다시 총론적으로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유정들은 몸과 마음이 의지하는 육근(六根)과 육경(六境)이 나의 자아를 살려주고 길러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재하는 나의 소유물로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부연해 본다면 색성향미촉 등이 임시 인연 화합으로 취합해 있는 근신(根身)과 기계(器界) 내지는 처자·전택·궁실·의복·음식·재물·명예·이익 등, 이 모두를 번뇌로 집착하고 탐애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들 때문에 그 모든 대상 즉 아(我)와 아소(我所)에 있어서 굳게 집착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빨리 얻으려는 탐심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을 얻고 나선 다시 그것을 잃을까봐 근심하는데, 이 때문에 모든 중생들은 얻었을 때나 잃었을 때 항상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이러한 번뇌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탐번뇌(貪煩惱)’라고 하며, 이 번뇌의 근본 뿌리는 무명 즉 탐진치 가운데서 치심이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10.25 선암사 사태를 보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엔 더 이상 선암사를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지말라. 태고종 총무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총무원에서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겠으니 선암사의 전반적인 운영은 선암사 재적스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에 운산 총무원장 이념으로 선암사를 접수하는데 순천시청에 도월과 승조를 도와 달라는 구걸의 공문을 발송하더니 10월 25일 아침에는 총무원 규정부 소속 승려들을 동원하고 급조된 유령단체(가칭 선암사 신도회) 그리고 승조와 도월을 앞세워 선암사 양창기 즉 도월스님을 총무원장과 태고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체포도첩을 시키고, 또한 이운산 총무원장은 양창기(도월)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그런 파렴치한 인간과 손을 잡았다는 현실에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제는 선암사나 태고종을 위해서도 선암사 사태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암사는 태고종이 창종 된 1970년도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암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가 아니라 조계산 선암사로 불리우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고종 창종 당시 정부조직기관에 태고종과 선암사는 무관하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을 태고종 총무원장과 종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암사의 진정한 주인은 1500년 동안 사자상승의 법맥과 은맥을 계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행하고 지켜온 선암사 재적 스님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이 없는 태고종 총무원장과 소임자는 선암사 내분을 조장하고 전 불교계를 먹칠한 책임을 통감하고 태고종단의 면 장래를 위해 현장에서 물러날 것을 절박하게 권고한다. 만약 이런 물지 각하고 파렴치한 스님들이 태고종을 계속해서 이끈다면 태고종단의 밝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총무원 규정부 소속 스님들 5인과 승조와 도월을 앞세워 조용한 산사에 다시 분규를 조장하는 저의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 불교도에게 참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합니다. 선암사는 태고종 중정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곳

입니다. 그런데 태고종 규정부 소속 스님들은 중정스님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사전 재가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 하였습니다.

중정스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알고도 묵인을 했다면 이 또한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암사와 태고종단의 분규가 1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태고종단의 최고의 어른이신 중정스님께서는 일언반구 없이 운산총무원장이 내 말을 안듣는다 하며 지금까지 묵인 내지는 방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태고종 중정스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희 선암사 재적대중은 그간의 어려운 사중 형편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에서 운영해야할 중정실 운영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태고종 중정실 운영경비를 태고종단에서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선암사에 일체를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몰염치하고 형편없는 종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라고도 태고종도들에게는 선암사가 태고종의 총림도량이고 중정스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가증스럽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도에게 의무금과 기부금을 착취하고 종단 발전에는 나 몰라 하는 자들이 바로 태고종 총무원입니다. 태고종단에 기증된 삼보정재인 도법사 이야기도 잠깐 해야겠습니다.

도법사 사찰을 태고종 총무원에서는 적정가격에 적법절차로 별 문제 없다고 애써 변명하지만 본래 태고종단에 도법사를 헌납한 스님께서는 그 후손에게 물려주면 후시라도 팔아 없어질까 노심초사하다 태고종단에 기증하면 영구보존 될 줄만 믿고 도법사를 태고종단에 기증하였지만 태고종 총무원엔 일반 보통 불자나 속인이 아닌 불교를 가장 적대하는 기독교 재단에 삼보정재를 형편없는 헐값에 팔아 넘겨 돈만 챙기는 그런 자들이 기생하는 종단이 태고종 총무원의 현주소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 불교의 태고종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총무원장을 비롯한 소임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사라져야합니다.

선교양종 대본산 조계산 선암사 재적대중 일동